# “세상에 이익 주는 불교가 되길” 발원

**쿠시나가르 열반당서 법회 봉행하고**
**‘한국불교 중흥발원’ 금란 가사 공양**
**육신 고통 이기고 당당한 걸음 보인**
**부처님 모습 떠올리며 정진 또 정진**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쿠시나가르 열반상에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위한 금란가사 공양을 올리고 있다. 발원 문구는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썼다.


인도 홀리 축제로 얼굴에 염료 등을 서로 묻히고 나온 인도주민들은 ‘나모 붓다야’를 외치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부처님 열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순례단.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매일 행선한다.


열반지서 기도하는 힌두교도들은 순례단 행렬에 자연스럽게 합장 귀의했다.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스님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순례단 선두 앞에서 정진했다.

이날 행선 이후 호산 스님은 “이런 역경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다. 정신적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맑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호산 스님은 천막결사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쭉 정진을 이어왔다. 하지만 스님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어서 화장실에 갈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는 단단해졌다.

스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영축산에 올랐고 대림정사에서는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하기 위해 아픈 상황에서도 천도재를 집전했다. 스님은 “영축산에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꼭 올라서 법회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 것이 계기가 됐다”며 “대림정사에서 천도재를 지낼 때도 죽을 힘을 다했다. 상월결사 전체 대중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아직 회복은 다 안됐지만 견딜만 하다. 느끼는 바가 색다르다”며 미소 지었다.

다리가 불편한 현조 스님은 행선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도량석 후 대중들을 깨우는 종송을 맡으며 대중을 돕고 있다.

발원문을 낭독하는 새벽예불 때나 마지막 구간에서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회향 자리에는 꼭 대중들과 함께 참여한다.

현조 스님은 “대중의 일원으로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한다. 이 대중을 바라만 보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현조 스님은 공주 태화산에서 진행된 상월결사 예비순례부터 동참했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걸었고, 이후 삼보사찰 천리순례에서는 수술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수술 휴유증이 부담됨에도 이번 순례에 참석하여 정진하고 있다. 스님은 “공부하려고 온거지 놀러 온 것은 아니니”라며 담담하게 미소지었다.

5조 법본 스님(울산 무룡사 주지)은 “통도사 창원포교당 불사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후 순례에 동참하게 됐다. 몸 건강히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걸음씩 부처님의 전법 포교를 생각하며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도인들 종교 넘어 순례단 환영

순례단이 향하는 길마다 많은 인도주민들이 나와 환영했다. 3월 7일 27일차에 순례단은 삐뻐라까낙에 도착했다. 이곳은 춘다의 공양이 이뤄진 파질나가르까지 4km남짓 떨어진 곳으로 순례단은 마지막 공양의 의미를 화두로 정진했다.

유피주 접경에 들어서자 마을주민들이 나와 북과 트럼펫을 불고, 꽃공양을 올리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공양의 의미로 순례단 숙영지 텐트촌에 순례기간 최초로 그늘천막을 쳤으며, 먼지가 일지 않도록 카페트를 깔았다. 휴식장소마다 간이 화장실을 준비하고,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등 인도순례단에 대한 마음을 보였다. 주 경계부터 숙영지 삐뻐라까낙까지 약 10km를 힌두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당 지역위원장 등 유력인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들이 함께 걸었다.

라지기르 영취산에서 부처님은 날란다를 거쳐 파트나에서 가르침을 베푼 후 바이샬리를 출발하여 열반의 여정을 이어간다. 여러 마을을 거쳐 파질나바르에 도착한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가 소유한 망고동산에서 쉬셨다.

춘다의 공양 중 ‘스카라 맛다바’를 맛본 부처님은 피가 나오는 설사병을 앓으셨다. 춘다는 스스로 귀한 음식이라하여 공양을 올렸지만 상한 음식이었다. 이를 지탄하는 이들이 많자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전 춘다의 공양이 다른 모든 탁발 음식을 능가하는 공양이라고 찬탄하시고 그 공양의 공덕에 대해 법문하여 춘다가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대의 공양에는 똑같은 결과가 있고, 똑같은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훌륭한 큰 결과보다 큰 이익이 있다.’**

융숭한 환대를 받았지만 순례단에게는 순례 매 순간 순간이 감사의 시간이었다.

그늘 등을 제공한 마을주민들을 대표해 람부 정신 쿠시나가르 힌두교 대표는 “한국불교 순례단의 방문에 힌두교도들도 환영하는 바이다. 순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왔다”고 했다.

라자니 칸트 마니 트리파시 쿠시나가르 전 여당 지역위원장도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서 쿠시니가르로 향하시며 설법하신 곳마다 유피주에서 표시를 해놨다. 이제 발굴과정만 남아있다”며 “힌두교도지만 부처님 열반지에 가서 기도하고 스님들을 만난다. 이번 순례로 많은 이들이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순례단을 응원했다.

이들의 공양은 재가불자들에게도 크게 다가왔다. 대림정사에서 천도재 후 스님들을 비롯해 스텝들에게 공양을 올린 7조 조장 이태경 불자는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처럼 스님들을 비롯한 대중에게 공양을 올린 것”이라며 “저는 불교를 잘 모르고 이제야 알게 됐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공덕에 대해 한번 더 느끼게 됐다”고 미소 지었다.

이날 저녁예불 이후에는 라메스 란잔 지역 치안판사를 비롯해 저나르던 야다부 파질나가르 지역발전위원장 등 지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순례단에 공양을 올렸다.

이에 감사의 의미로 회주 자승 스님은 이들에게 장군죽비와 팔만대장경판, 염주 등을 선물했다.

라메스 란잔 지역 치안판사는 “우리는 순례단의 스님들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다. 순례단의 방문으로 지역의 많은 이들이 불교와 한국에 대해 알게 됐다”며 “모디 총리도 한국을 매우 좋아한다. 이번 순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하라고 전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불교를 고리로 양국 교류가 더욱 단단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춘다의 공양이 이뤄진 파질나가르의 저나르던 야다부 지역발전위원장도 “인도사람들은 항상 손님을 신으로 생각한다. 더욱 많은 한국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길인 이곳을 찾으셨으면 한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순례 종반부, 순례단은 모든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알린 부처님 탄생 의미가 서린 룸비니와 인간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향취가 남은 카필라바스투 등을 참배하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신 쉬라바스티 기원정사를 향해 행선을 이어간다.


제38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모집안내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생활 속 관법 실천과
마음공부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긍정적으로 재입력하는
연습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바꾸어 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기 간 : 4월 1일(토)~5월 27일(토)
9주 매주(토)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 소 :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함께하는 전화
edu.hansi.org
수 강 료 : 이십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전화문의 : (031) 470-3200, 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